

wizmania

똑똑한 길안내 도우미 'Fine-F400'

인라인 전문 스쿨 쿠키스쿨을 방문하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을 선명하게 해주는 포커스매직

홈씨어터 PC를 조립하려면 (1)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USB CDMA 모뎀



주부 모니터
여행정보
추천블로거



2005. 09

www.mpio.co.kr

mpio



맛보세요! 다양한 즐거움
All for ONE for all **MPIO ONE**



FM
RADIO



Photo



Movie



Game



MP3



Voice
Recording

지금 **DREAMWIZ** 매니아 커뮤니티 (<http://mt.dreamwiz.com>)에 접속하시면 매니아들의 **MPIO ONE** (엠펜오 원) 사용기를 보실수 있습니다.

Contents

Vol.6 Septembe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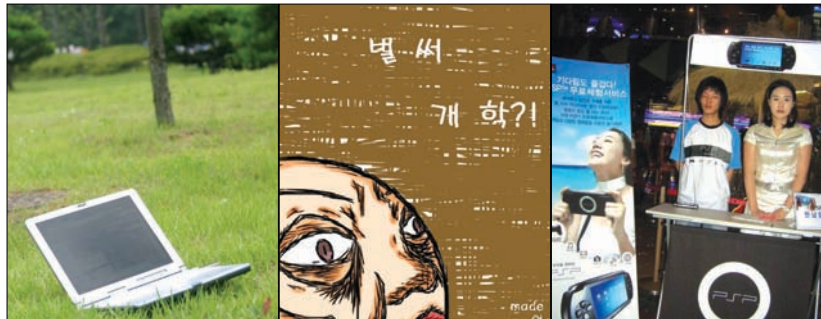


- 02 인라인 시티
인라인 전문 스쿨, 쿠키스쿨을 방문하다~!
- 04 디매니아
반셔터 사용법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을 선명하게 해주는 포커스매직
- 06 오토스파이넷
미리 보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 12 DVD프리임
홈씨어터 PC를 조립하려면 (1)
- 15 존 한자사전
시사한자 / 編輯收錄 (편찬수록)
- 16 겐티즌
온라인뉴스
- 20 매니아 트렌드
똑똑한 길안내 도우미 'Fine-F400'
- 24 투데이스피피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USB CDMA 모뎀
- 26 매니안닷컴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함께 쓴다면, 넷기어 유무선공유기
- 30 루리웹
게임관련 뉴스

드림위즈



- 지식검색 재치답변 13
- 주부 모니터 14
- 뉴스레터 19
- 여행정보 23
- 추천블로거 28
- 추천 맛집 32



wizmania 2005년 9월호

〈위즈매니아〉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일 2005년 9월 15일 통권 제 6호 발행처 (주)드림위즈
주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빌딩 17층 전화 (02)3434-3500 팩스 (02)3434-3505
발행인 겸 편집인 이찬진 등록번호 서울 라 09640 등록일자 2005년 3월 15일
인쇄 (주)신화프린팅코아퍼레이션
디자인 <http://www.gbooks.co.kr> (02)2026-5540

인라인전문 스쿨, 쿠키스쿨을 방문하다~!

웰빙 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일과를 마친 시간에도 이전과는 달리 많은 직장인들이 운동이나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인라인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정규과정을 통해서 강습을 받는 쿠키스쿨의 강습장을 찾았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목목교의 인라인트랙과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는 땀을 흘리며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과 강익에 열중한 강습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라인 쿠키스쿨(<http://school.inlinecookie.com>, 대표 문지옥)은 2000년 8월 일반인에게 인라인 스케이팅을 보급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국내 최초의 국제인라인스케이팅협회(IISA-International Inline Skating Association) 공인지도자(ICP-Inline Certification Program)들이 운영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전문 스쿨이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성인반 수강생 모습

연간 1,300~1,500명의 강습생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스쿨이다.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피트니스와 스피드, 하키, 슬라럼, 어린이,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강습생들이 강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클럽과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인라인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프로그램, 어머니 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다.



전문강습 중의 하나인 레이싱 연습 모습



목동교 인라인트랙 수강생 모습

일반인들이 스쿨을 이용할 경우 장점,

첫째, 일반 피트니스 강습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스피드, 슬라럼, 하키 등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정원제와 담임제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피트니스 수업만으로도 인라인의 재미와 건강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전문적인 강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역별 과정을 피트니스, 슬라럼, 스피드, 인라인하키, 어린이 프로그램, 유

둘째, 단순히 인라인을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인라인 커뮤니티 조성이 이루어져 친목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이나 사회 환원 기회도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쿠키스쿨은 세계 지구의 날 행사, 차 없는 거리 캠페인, 마라톤 패트를 자원봉사, 자선냄비, 회원모집 거리 홍보 등의 활동을 했다.

쿠키스쿨에서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자연스

인라인 쿠키스쿨 4명의 전임강사와 2명의 파트타임 강사, 1명의 연수지도자, 웹마스터, 사무지원 등 총 7명이 활동하고 있고,

럽게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쿠키클럽, 어머니클럽(MMIS), 어린이클럽(쿠키즈), 레이싱클럽(스네이크), 하기와 슬라럼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강습은 매달 과정이 개설되며, 목동청소년수련관, 인라인트랙(목동교), 여의도 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여의도 공원 강습 모습

쿠키스쿨은 인라인 강습이외에도 각종 교육기관, 사회체육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생활체육지도사 전문연수, 해립학교의 인라인강습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교 전공과 교양 수업도 강의중이며 지역 학교의 방과후 활동과 CA도 지원하고 있다.

아직 인라인 스포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많은 강습생들을 배출한 쿠키스쿨이 앞으로도 올바른 인라인 문화를 전파시키고, 인라인을 배우려는 초보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게 인라인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길 기원한다.

홈페이지

인라인쿠키스쿨

<http://school.inlinecookie.com>

인라인쿠키클럽

www.inlinecookie.com

연락처

02-2642-7844 [월~금 10:00 ~ 18:00]

이메일 : webmaster@inlinecookie.com

쿠키스쿨 박은실 선생님과 미니인터뷰



♡ 위즈메니아 :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와 인라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박은실 : 쿠키스쿨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실입니다. 저는 원래 체육 전공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서울녹색소비자연대에서(녹소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서울녹소연이 서울시와 연합해서 인라인을 녹색교통으로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광화문 일대를 돌아오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녹소연 총장님이 모든 녹소연 실무진에게 인라인을 배우도록 했는데, 유독 저만 인라인에 빠져서 사무실에서 인라인을 신고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때부터 인라인에 푹 빠져들었고, ICP 교육을 받았습니다.

♡ 위즈메니아 : 쿠키스쿨에서 인라인 강사로 활동하게 된 동기는?

♡ 박은실 : 인라인쿠키라는 동호회에서 참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집이 인천인데, 여의도에 있는 동호회에 오기 위해 3~4시간 인라인을 타고 왕복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중 ICP level 1을 취득하고, ICP로 활동하고 계신 문지옥 선생님의 권유로 인라인 강사로 활동하다가 ICP level 2도 취득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수업할 때만 기운이 나니 인라인 강사 체질이라고 생각할 정도지요.

♡ 위즈메니아 : 강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박은실 : 수업시간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 잡기도 쉽지 않고, 로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7살 어린이들이 <인라인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와 엽서를 보내주고, 인라인 타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나이 많은 분이 나 운동을 멀리 했던 분들이 인라인을 시작해서 너무 즐겁다고 하며 건강과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볼 때 행복하답니다.

♡ 위즈메니아 : 인라인을 배우려는 초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박은실 : 인라인을 배우려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동호회나 쿠키 같은 스쿨은 좋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면서 잘 안 된다며,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 ICP란? : ICP(Inline Certification Program)는 국제인라인지도자협회(ICP-International, 전 IISA)에서 인증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도안을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0년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 117명의 지도자가 활동중이다.

반셔터 사용법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반셔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초점이 중앙부분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될 주 피사체를 화면 중앙부에 넣어 촬영하는 것은 단순한 구도로서 약간은 지루한 느낌을 줄 때가 많다. 또한 여행지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화면중앙에 인물을 넣으면 배경이 되는 풍경을 넣을 수 없기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경우 반셔터 기능을 사용하면 인물을 화면 주변부에 위치시키더라도 화면 중앙부에 놓고 촬영한 것과 같은 초점과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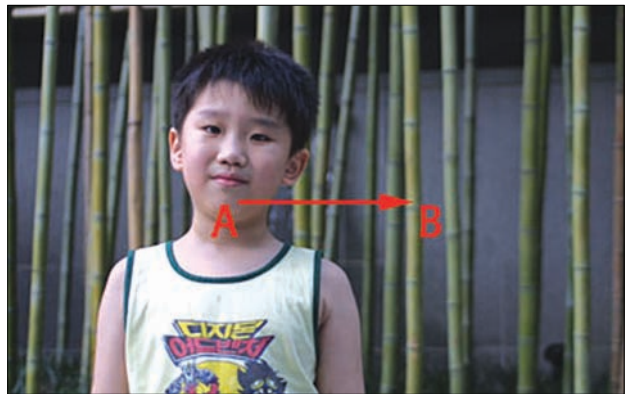
이러한 반셔터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_1 먼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화면 중앙부에 위치시킨다.



1_2 이때 셔터를 가볍게 한번 누르면 사진이 촬영되기 전에 중간부분에서 셔터가 걸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손가락을 계속 눌러준 채 1-2 초간 멈추고 있으면 카메라는 초점과 노출을 자동적으로 맞추게 된다.



1_3 여기에서 손을 셔터 버튼에서 떼지 않은 채 촬영하고자 하는 구도를 잡아 카메라를 움직여 준 후(A에서 B로) 카메라의 셔터를 끝까지 눌러주면 촬영이 이뤄진다.

이러한 반셔터 기법으로 촬영하면 원하는 피사체에 노출과 초점을 맞추고, 다른 피사체의 노출과 초점을 무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다양한 구도의 사진촬영이 가능하게 된다.

오늘의 유머(<http://todayhumor.dreamwiz.com/>)

남녀평등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전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도 군대가기만 하면 하는데

저 군대가기만 가겠습니다.

힘든 것은 알지만 가겠습니다.

?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 여자처럼 생긴 사람을 꽃미남이라고 하더군요.

전 여잔데 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꽃미남이라고 불러주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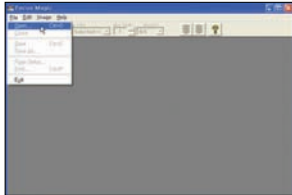
산삼추경자님이 유머글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을 선명하게 해주는 포커스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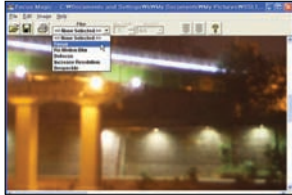
1_1 야간의 장시간 노출로 인해 초점이 흐려진 사진이다.



1_2 이러한 초점이 흐려진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 포커스 매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초점이 흐려진 사진을 보정해주기 위해 File메뉴의 Open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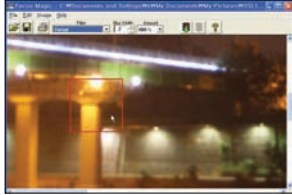
1_3 흐려진 초점을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 Filter항목에서 팝업 버튼을 클릭하여 Focus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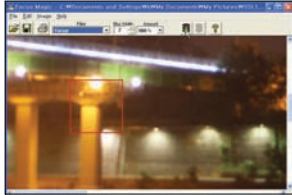
1_4 선명도를 조절하기 위해 Blur Width정도를 선택한다. 사진 이미지에 따라 5 - 10정도의 값을 선택하면 된다.



1_5 미리보기 윈도우 위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붉은색 사각형 안에 적용되어질 이미지가 미리 보기로 나타난다.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옵션값을 변경하면 된다.



1_6 이렇게 설정된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신호등 모양의 Start the Image Processing버튼을 클릭하면 초점이 선명하게 해주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1_7 마지막으로 File메뉴에서 Save 혹은 Save as를 선택하여 초점을 선명하게 만든 이미지를 저장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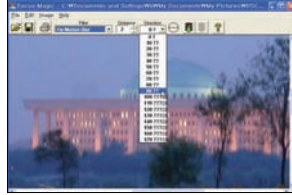
디카로 사진을 촬영하다보면 손떨림 현상이나 어두운 곳에서 저속셔터 등의 영향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촬영되곤 한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삭제하게 되는데, 약간 흔들린 사진을 쉽고 편리하게 보정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도 쉽고 빠르게 선명하게 보정할 수 있는 포커스 매직(Focus Magic)에 대해 살펴보고 하자.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이지만, 일반인들을 위해 기능을 제약한 셰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매니아 자료실**을 찾아보면 된다.

2_1 포커스 매직 프로그램은 손떨림으로 인해 발생한 흐려진 이미지를 보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이미지가 흔들린 모션블러 현상도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션블러가 발생한 이미지를 불러들인 후 Filter항목에서 Fix Motion Blur항목을 선택한다.



2_2 모션블러가 발생한 각도를 설정한다.



2_3 미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나타나는 미리보기창을 보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 수치를 적용시킨다.



2_4 이렇게 설정된 옵션을 적용시키기 위해 신호등 모양의 Start the Image Processing버튼을 클릭하면, 모션블러가 보정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미리 보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는 프랑크푸르트쇼가 9월 12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25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다. 프랑크푸르트쇼는 세계 최대의 모터쇼로 독일은 물론이고 각국 메이커들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어서 BMW 550i, M스포르츠, 아우디 Q7, 벤츠 차세대 S클래스, 시보레 아베오(지엠 대우-젠트라), 기아 로체와 멀티S 컨셉카, 혼다 뉴 시빅, 현대 뉴클릭, 베르나 후속, 볼보 C70, 토요타 3세대 RAV4와 엔도 컨셉카, 르노 에게우스, 클리오 스포츠 등 다양한 차종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토스파이넷에서는 개막 직전까지 모터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 수시로 소개하며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보다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BMW 3시리즈 투어링



BMW가 지난 3월 제네바쇼를 통해 공개했던 뉴 3시리즈 세단에 이어, 올 가을 프랑크푸르트쇼에 투어링(왜건)모델을 전시한다. 우아함과 다이내믹함을 동시에 추구한 세단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왜건만의 장점인 실용성을 극대화했다는 주장이다.

북미시장의 고객 요구를 수용하여 2005년 10월부터 4륜구동(xDrive) 시스템을 갖춘 325xi 모델을 먼저 시판하고 2006년 중에 후륜구동 모델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325i 세단과 동일한 신형 직렬 6기통 엔진과 6단 MT를 기본사양으로 적용하고 6단 AT는 옵션으로 제공한다.

유럽 및 기타 지역은 9월부터 320d와 325i를 시판하며 이후 320i, 330i, 330d를 추가할 예정이다.

구형보다 길이(+1.65"), 너비(+3.07"), 높이(+0.35")가 확대되었으며 늘어난 휠 베이스(+1.38")를 바탕으로 보다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아우디 고성능 SUV - Q7

사전 마케팅으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아우디 Q7은 4.2리터 V8엔진, 최신 콰트로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을 무기로 2006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시장공략에 나선다.

길이 × 너비 × 높이, 5,086 × 1,983 × 1,737 mm 사이즈에 7인승 구조를 하고 있으며 프론트와 리어 오버행을 줄이고 3,002 mm의 휠 베이스를 확보,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5인 시트만 사용할 경우 동급 최대인 775리터의 적재 공간을 선사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최고출력 350마력 4.2리터 V8 가솔린 엔진과 233마력 3.0리터 TDI 직렬 6기통엔진을 장착하였고 트랜스미션은 6단 팁트로닉을 선택했다.

18인치 휠을 기본으로 19인치,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고 가변식 에어서스펜션은 온로드 주행뿐만 아니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이끈다.



메르세데스 벤츠 차세대 S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가 1998년 이후 485,000대 가량 생산된 현행 S클래스의 차세대 모델을 올 가을 출시한다.

최근의 흐름에 맞춰 전체 사이즈는 현행보다 상당히 커졌다. 5076mm와 5206mm(롱 휠베이스버전)의 두 가지 길이의 바디는 구형보다 각각 33mm, 43mm 길어졌고 휠베이스 또한 70mm와 80mm 늘어난 3,035mm와 3,165mm나 된다. 너비와 높이는 각각 16mm, 29mm 확대되었다.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실내공간도 구형과 비교해 상당히 넉넉해졌다. 39mm나 늘어난 숄더 룬과 엘보 룬, 5mm 확대된 헤드 룬을 자랑하며 롱 휠베이스 버전의 경우 앞과 뒷좌석 거리가 10mm 정도 늘어나 편안함을 제공.

또한 16웨이 전동식 운전석 시트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였고, 히팅/통풍 기능을 가진 럭셔리 시트, 다이내믹 멀티컨투어 시트 등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개량형 에어서스펜션은 시속 120km/h 이상과 스포츠 모드 시 20mm 자세를 낮춰 핸들링 특성과 공기역학적인 면을 향상시켜 최적의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능동형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시스템은 옵션으로 제공(S600은 기본 사양)한다.



재규어 차세대 XK

재규어가 올 알루미늄 보디로 제작된 차세대 XK 모습을 공개했다. 정식 데뷔는 9월의 프랑크푸르트쇼이고 내년 초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2+2시트 구조, 럭셔리 쿠페를 지향하는 XK의 스타일은 지난 제네바쇼에 선보였던 컨셉카의 디자인을 양산화시킨 것이다. 전통적인 XK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인데,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디자인이 가장 많이 변했다.

길이 × 너비 × 높이, 4,791 × 2,070 × 1,322 mm의 보디는 구형(4,776 × 2,015 × 1,296)보다 큰 사이즈로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신형 XK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경량화. 이미 XJ에 사용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알루미늄 보디 셸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체무게는 1,595kg에 불과하다. 벤츠 CLK500(1,660kg)과 BMW 645Ci쿠페(1,695kg)보다 최대 100kg이나 가벼운 수차다. 구형 스틸 구조모델의 XK보다 31%나 향상된 보디 강성은 고성능 퍼포먼스 주행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뛰어난 달리기 성능은 300마력 4.2리터 자연흡기 V8엔진과 ZF 6단 시퀀셜 트랜스미션의 몫이다. 0-100km/h 가속시간은 6.2초(0-60mph는 5.9초)로 큰 차이가 없지만 1/4 마일 도달시간은 14.4초로 빠른편이다. 최고시속은 250km/h 제한.





기아차 옵티마 후속, 로체 공개

기아자동차가 옵티마 후속으로 프랑크푸르트쇼에 데뷔시킬 예정인 신형 마젠티스(국내명:로체) 사진을 공개했다.

길이 × 너비 × 높이, 4,735 × 1,805 × 1,480 mm 사이즈의 보디는 현행 옵티마와 비교해 길이와 너비가 10mm씩 줄었지만 휠베이스는 오히려 20mm 늘어난 2,720mm. 높이는 60mm나 늘어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수출형 기준으로 ABS, ESP, 리어 주차 보조 센서, 프론트와 사이

드 에어백, 액티브 헤드 리스트레인트(active head restraints) 등 안정장비를 갖췄다.

북미시장을 위해 2.4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엔진과 2.7리터 V6 가솔린 엔진을 준비했고, 유럽수출 모델에는 2.0리터 직렬 4기통과 2.7리터 V6가솔린 사양에 2.0리터 디젤엔진을 추가로 장착했다.

국내모델은 1.8L, 2.0L, 2.4L 세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지엠대우, 소형 세단 - 젠트라

지엠대우가 프리미엄 소형 세단 '젠트라 (Gentra)' 를 개발, 9월초에 국내 판매시판과 동시에 시보레 브랜드로 유럽시장에 진출한다.

'젠트라' 는 '온화하고 세련된' 이라는 영어 '젠틀(Gentle)' 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기존 소형차를 뛰어넘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의 프리미엄 소형 세단을 표방한다.

외부 디자인은 엣지(Edge) 스타일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전면 범퍼로 이어지는 후드 캐릭터 라인, 실린더형 헤드 램프와 테일 램프,

원형 안개등, 15인치 알로이 휠 등이 조화를 이뤄 강인하면서 세련된 멋과 역동성, 스포티함을 강조한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인체 공학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블랙과 베이지의 투톤 인테리어 컬러는 고급스러움과 더불어 중형차급 이상에서 느낄 수 있는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새롭게 디자인해 적용한 오디오는 전면 중앙부 계기판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인테리어에 세련됨을 더한다.

하드탑으로 변신한 2세대 볼보 C70

독일 프랑크푸르트쇼에 신형 볼보 C70이 소프트탑을 버리고 첨단 하드탑 오픈모델로 등장한다.

두터운 숄더라인과 리어 램프를 비롯해 전체적인 디자인은 최근에 선보인 볼보 모델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고 실내의 사이즈는 구형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어른 4명이 승차해도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태리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의 참여속에 개발된 C70은 스웨덴 'Uddevala' 공장에서 생산되고 유럽내 시판은 내년 초로 예정되었다. 푸조나 시트로엥과 달리 C70의 루프 시스템은 2단이 아닌 3단으로 접히는 방법을 택해 트렁크 공간확보와 넓은 실내 공간을 실현했다.

포드 포커스와 마쓰다 3 뿐만 아니라 볼보 S40, V50 에 사용된 C1플랫폼을 베이스로 개발되었으며 별도의 보강작업으로

10~15% 정도 향상된 새시를 만들었다. 동력계통과 실내 디자인은 S40과 가장 유사하고 리어 오버행이 조금 길어졌다.

전통 직렬 5기통으로 이뤄진 엔진 라인업은 고성능 터보차저 220마력 2.5리터 T5를 비롯해 170마력과 140마력 2.4리터 가솔린엔진이며 2006년 중 2.4리터 180마력 디젤엔진이 추가될 예정.



푸조, 3륜 스포츠 컨셉카 - 20CUP

푸조가 새로운 디자인의 3륜 컨셉트 모델을 프랑크푸르트쇼에 출품, 관객 모으기에 나선다. 2인승 3륜 구조의 독특한 레이아웃은 푸조 스타일 센터에서 제안하는 미래형 스포츠 로드스터로 자동차와 바이크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는 주장이다. 길이 × 너비 × 높이, 3.63 m × 1.77 m × 1.16 m 사이즈에 휠 베이스 2.31 m 컴팩트 차체에 차량 무게는 500kg.

20CUP에 얹힌 엔진은 PSA(푸조 시트로엥)와 BMW의 협력으로 개발된 170마력짜리 4기통 터보차저 휘발유 엔진이다. 240 Nm의 최대토크와 6단 시퀀셜 트랜스미션의 조합은 가벼운 차체를 순식간에 가속시킨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더블위시본 타입으로 가변식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을 도입했고 리어 서스펜션은 바이크와 유사한 싱글암 타입이다. 18인치 휠에 프론트 210/65 R18, 리어 377/71 R18 타이어를 신었다.



시트로엥, C-SportLounge

시트로엥이 21세기 그랜드 투어러(GT)를 지향하는 'C-SportLounge'를 프랑크푸르트쇼에 출품한다.

컷-엣지 디자인의 'C-SportLounge'는 공기저항계수 0.26를 기록할 만큼 다이내믹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자랑한다.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의 프론트 범퍼와 부메랑 모양의 헤드램프는 시트로엥의 아이덴티티이며, 휠 하우스징을 강조해 스포티함이 살아있다.

2+2 구조의 독립 시트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실내는 장거리 여행시에도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제공한다. 양쪽으로 열리는 도어를 적용해 승하차가 용이하다.



홈씨어터 PC를 조립하려면 (1)

글 : 박진홍 / 필자는 현재 dvdprime.com의 대표이며 조선일보와 디지털 타임스에 칼럼을 연재 중이다.

초창기 PC-DVD는 DVD-ROM과 사운드카드, 5.1 채널 스피커가 전부였다. 하지만 발전을 거듭해 온 PC는 PC-DVD를 지나 HTPC(Home Theater PC)로 발전하면서 가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PC의 완전 가전화를 선언한 미디어센터 PC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PC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PC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거나 업그레이드가 없었던 소비자라면 현재 시장에 어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어떤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이번 기사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PC 시장의



동향을 아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최근 인텔과 AMD의 듀얼 코어기술의 발표와 애플의 인텔 CPU 사용 발표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PC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PC를 구입했거나 업그레이드를 한 소비자라면 이러한 신기술들을 보고도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거나 새롭게 PC를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이라면 이러한 소식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 역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업그레이드의 매력을 느낄 만한 신제품도 없거니와 PC의 활용이 몇 가지에 한정되면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DSLR 카메라를 구입한 뒤로 비교적 높은 CPU 파워가 필요한 이미지처리(흔히 '후보정'이라 불리는) 작업이 늘어나고, 1080p의 고해상도로 제작된 WMVHD 파일재생 등을 위해서는

지금의 PC로는 한계가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PC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 PC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여 견적을 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물론, 조립 PC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내놓은 완제품 PC를 구입하면 이런 고민에서 해방될 수는 있겠지만 조립 PC에 비해 2% 부족한 듯한 완제품 PC는 분명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립 PC를 선택한 이상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내 PC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어떤 제품이 고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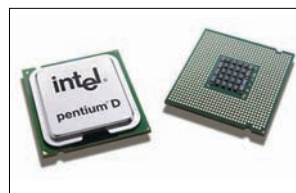
CPU의 핵심 키워드, 듀얼 코어



인텔과 AMD 할 것 없이 최근 CPU의 화두는 단연 '듀얼 코어' 일 것이다. 물리적으로 두 개의 CPU가 사용

되었던 것은 과거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게임을 비롯한 여러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좀 더 빠른 속도의 CPU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64비트 OS가 속속 공개되면서 이제는 64비트 명령어 처리도 기본적인 사양이 되어가고 있다.



인텔 펜티엄 D 프로세서



AMD의 Athlon64 프로세서

새로운 기능과 고성능으로 무장한 CPU의 출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CPU는 여러 가지 이유(제조공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새로운 칩셋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적인 요소도 다분하다)로 규격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격의 변화는 한동안 업그레이드를 잊고 살던 소비자들이나 초보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CPU의 규격은 인텔의 경우 펜티엄 4 기반의 CPU를 기준으로 소켓 478과 LGA 775의 두 가지가 존재하며 AMD의 경우 애슬론 64를 기준으로 소켓 939, 소켓 940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CPU를 고를 때 자신이 구입한 형태와 맞는 메인보드를 구입해야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자.

* 참고로 제품의 가격은 금년 6월 기준, 최저가 사이트의 가격을 참고하였다. 실제 구입할 경우에는 직접 가격비교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고의 성능을 고집한다면?	
인텔 펜티엄 D 스미스필드 830 (LGA 775)	365,000원
AMD 애슬론64 베니스 3500+ (소켓 939)	316,000원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다면?	
인텔 펜티엄 4 노스우드 2.8C (소켓 478)	200,000원
인텔 펜티엄 4 프레스캣 3.0E (LGA 775)	189,000원
AMD 애슬론64 베니스 3000+ (소켓 939)	164,000원
AMD 애슬론64 베니스 3200+ (소켓 939)	218,000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면?	
인텔 셀러론 노스우드 2.4 (소켓 478)	63,000원
인텔 셀러론 D 프레스캣 330 (소켓 478)	84,000원
AMD 셈프론 팔레르모 2600+ (소켓 754)	74,000원

많은 기능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한 메인보드



CPU보다 더 많은 종류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제품이 메인보드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메인보드는 다양한 기능을 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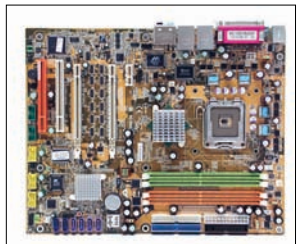
하고 있어 별도의 주변기기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능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자신이 필요한 기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출시되는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LAN 카드와 사운드카드를 내장하고 있다. 하지만 HTPC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출력의 지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장된 사운드 카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CPU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고해상도의 3D 게임이나 HD 영상 등의 활용도가 높다면 별도의 사운드카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인텔과 AMD 모두 새로운 CPU를 내놓을 때마다 CPU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칩셋과 메인보드를 함께 출시한다. 게다가 제조사도 많아 메인보드의 종류는 엄청나다. 하지만 동일한 칩셋을 사용한 경우 제품의 성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므로 자신이 구입한 CPU에 맞는 메인보드 중에서 여러 가지 부가기능을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모든 기능을 내장한 MSI P4N Diamond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메인보드 백패널

최고의 성능을 고집한다면?	
ASUS P5WD5 Premium (i955X)	297,000원
MSI P4N Diamond (nForce SLI)	273,000원
MSI K8N Diamond (nForce SLI)	210,000원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다면?	
인텔 D865 PERLK (i865PE)	200,000원
가이바이트 GA-8I945P-Pro (i945P)	189,000원
ASUS A8V Deluex (VIA K8T800 Pro)	118,000원
MSI K8N Neo4 Platinum (nForce4 Ultra)	134,000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면?	
MSI 865PE Neo2-V (소켓 478)	64,000원
가이바이트 GA-8IPE1000 GT (소켓 478)	72,000원
MSI K8T Neo-FSR (소켓 754)	68,000원

메모리는 '듀얼채널' 과 'DD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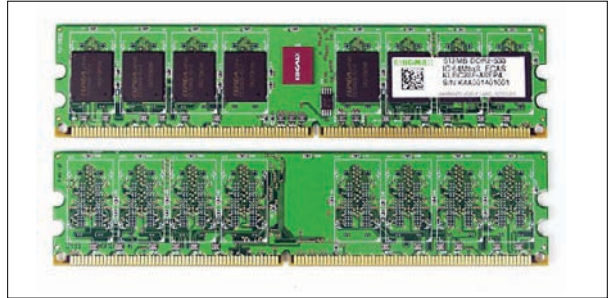


CPU와 메인보드만큼 변화 무쌍하지는 않더라도 메모리는 소리 없이 변화해왔다. 요즘 주로 사용되고 있는 DDR 메모리는 메모리의 속

도에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를 활용한 듀얼채널 기술로 인해 메모리 속도는 빠른 CPU의 속도를 쫓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DDR2로 발전하여 최근 출시되는 메인보드에서는 고속의 DDR2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메모리는 CPU와 메인보드처럼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용량과 가격, A/S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면 된다.

다만 최근 메인보드에서는 대부분 듀얼 채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구입할 때 한 쌍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512M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256MB 2개를 구입하여 듀얼채널을 구성할 수 있다. CPU의 클럭속도를 높여 사용하는 오버클러커가 아니라면 굳이 고속의 메모리를 사

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신 메인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DDR2 메모리

최고의 성능을 고집한다면?

Corsair DDR2 PC-5400 1GB (512MBx2) 248,000원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DDR2 PC-4200 1GB (512MBx2) 90,000원

삼성전자 DDR PC-3200 1GB (512MBx2) 88,000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면?

삼성전자 DDR PC-3200 512MB (256MBx2) 42,000원

삼성전자 DDR PC-2700 512MB (256MBx2) 40,000원

지면관계상 홈씨어터 피씨(HTPC)를 구성하기 위한 부품 중 CPU와 메인보드 및 메모리까지만 설명했다. 다음 호에는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사운드카드 등도 설명할 예정인데, 다음 호가 궁금한 분들은 디브이디프라임(dvdprime.dreamwiz.com) 사이트를 방문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보기 바란다.

오늘의 유머(http://todayhumor.dreamwiz.com/)

오랫동안 솔로였던 사람의 증상

1. 입이 거칠어진다. 주로 친구들과하곤 대화를 하니까, 한 문장 말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욕이 한 번씩 들어간다.
2. 걸음이 빨라진다.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 버스정류장까지 가는데 이젠 거의 마을버스 속도가 난다.
3. 예쁜 여자/잘 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고개가 돌아간다. 애인 있을 때는 눈만 슬쩍 돌려도 불벼락이 떨어지니 조심했는데, 이젠 아예 몸이 돌아간다.
4. 용돈이 남는 달도 있다. 문화생활이 전무하니까.
5. 웬만한 드라마 줄거리 다 안다. 집에 일찍 오니 미니시리즈, 수목드라마, 주말연속극 다 보게 된다. 시간 겹쳐서 못 보는 것은 재방송으로 다 본다.
6. 행색이 추해진다. 그나마 없는 패션 감각에 이젠 거의 포기상태다. 그러다보니 악순환. 애인이 더 안 생긴다.
7. 같이 솔로 생활하던 친구가 애인 생기면 배 아프다. 그나마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가 애인 생기면 배신감과 함께 더 심심해진다.
8. 나이에 맞지 않게 연예인에 집착한다. TV를 많이 보고 눈만 높아진다. 군인들에게서 간혹 나타나는 증상으로 역시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9. 남들 붙어다니는 것 보면 눈꼴이 시다. 버스 앞자리에 딱 붙어 있는 바퀴벌레 한 쌍을 보면 배가 아프다.
10. 무슨무슨 날이 제일 싫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등 이런 것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장난하냐!!님이 유머글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지식 검색

재치 답변

<http://ksearch.dreamwiz.com>



수능 때 선배들이나 친구들 응원 어떻게 했나요?

새벽부터 먼저 가서 막 응원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셨나요? 그리고 수능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 그리고 응원 재미있나요? (비공개 님)



· 1학년이신가요? 일단 1학년이시면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수능 하루 전날 10시쯤부터 자리경쟁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행연습은, 다음날 아침까지 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오면 응원하는데, 이때가 정말 힘듭니다. 기합 넣고 노래 부르고 커피나 간단한 초코바 같은 것 주기도 합니다. 입장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며 끝난 후에는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답니다. 다음날 목이 거의 쉬게 되지요. (잡담전문님)



양아치와 날라리의 차이점은 ?? (이재경 님)



· 성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양아치는 남자를 일컫고 날라리는 여자를 일컫지 않나요??

여자한테 양아치 같다. 남자한테 날라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비공개 님)

· 사용관례를 보면, 양아치하면 조직폭력배 가운데서도 B급을 말하는 것 같고, 상당히 부정적인 안 좋은 말이죠, 날라리하면 “잘 노는 아이”란 뜻의 트렌디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 아닌가요? (비공개 님)

· 어원에 관해 살펴보면, “동냥-아치”의 준말이 양아치가 되었습니다. 동냥은 아시죠? 여기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접미사 ‘-아치’가 붙어 동냥하는 사람이란 뜻이 나왔고, 동냥아치를 줄여 양아치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양아치란 말이 오늘날은 ‘협박 공갈을 해대며 돈을 갈취하는 폭력 집단’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날라리”는 원래 악기의 이름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의 은어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을 보니 대평소라고도 불렀고, 1993년 국립국악원에서 “새납”으로 이름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긴 관에 허(reed)를 꽂아서 부는 세로악기로 화려하고 강렬한 음색을 지녔습니다. (비공개 님)

· 양아치란 남의 것을 빌려 쓰거나 주워서 사용하던 자들을 일컫었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게 들고 큰 바구니 하나 둘러메고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져 쓸 만한 것을 찾아 사용하거나 고물(종이)등을 줬던 사람을 일컫던 말입니다. 지금은 양아치라고 하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개나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흔히 건달들한테 양아치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인데, 요즘 건달은 건달 같지 않고 양아치같은 사람도 많더군요. (익명 님)



살 찌는 법 없나요?? 살 찌는 음식도 알려주세요.



살 빠지는 법은 많아요도 살 찌는 법은 정보를 얻기 힘든 것 같습니다. (비공개 님)



· 뭐 살찌는 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전 한달도 안 되어 10킬로 찼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주일에 4번 이상 슈퍼마켓에서 5천원 이상 먹을 것을 사야 합니다. 3천원짜리 떡볶이는 아이스크림, 단 과자, 초콜릿 등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고기도 살찌는데 한 몫 한 것 같습니다. (김원교 님)

· 지방으로 찌는 살은 빠야 되는 살입니다. 그렇게 찌면 보기 좋을 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헬스입니다. 근육과 탄수화물로 살을 찌우세요. 하루에 4끼 드시고 저녁쯤에 운동한 다음 계란흰자만 5~10개 꼬박꼬박 드시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밥 먹는 도중에 감자, 고구마 등을 많이 드세요. 효과적입니다 헬스장에서는 달리기를 하면 안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시면 됩니다. (비공개 님)



건설현장 잡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경로로 취업이 되며, 하루 일당이나 한달 평균 수입 등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님)



· 벼룩신문을 찾아보면 노무현장 근로자 구한다는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가면 벽돌 나르는 일부터 하기 때문에 하체와 어깨를 단련한 다음에 가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심한 일을 하면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감을 잡아가면 짐 나르는 단순일꾼이 아닌 일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 잡부는 일당 3~5만원이고, 일을 배우고 특정 분야(미장, 페인트칠, 도배 등)에서 경력을 쌓으면 일당이 올라갑니다. 일당제이다 보니 한달 평균수입은 고정적이지 않고, 한달 동안 몇일을 일했느냐에 따라 한달 수입이 달라집니다.

주 부 모 니 터

<http://jubumonitor.dreamwiz.com>

주부 모니터 응모 요령과 활동

많은 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다양한 평가를 모아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주부모니터 제도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되면 소비자 뜻을 직접 전달하면서 수입도 짝짤해 부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번 호에는 실제 주부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 주부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자.



처음으로 해보는 모니터 활동인지라, 조금 낯설기도 하고 생소했지만, 워낙 과자를 좋아하는 까닭에 6개월이 빨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글 / 여름안개

지원서 작성

개인적으로 과자를 좋아하지만, 롯데제과에 지원하기 위해 마트는 3개 이상, 동네슈퍼는 5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잘 팔리는 과자나 눈에 띄어오는 껌, 초콜릿, 사탕 등을 한 달 동안 사서 먹어 보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선물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나 진열방식이나 맛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가끔씩 다른 경쟁회사 제품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지원서를 작성할 때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주부 입장이나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의 엄마라는 입장에서 지원서를 작성했던 것이 선발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과회사 모니터가 과자를 만드는 프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자를 즐겨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모임과 하는 일

한 달에 두 번, 금요일 오전(10:00~12:00) 시간을 이용해 모임을 가졌고, 임기 중 따로 시간을 정해 공장 견학

을 했는데, 롯데는 본사와 공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모임에서는 주로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먹기 때문에, 과자류나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제품을 먹어보고 평가하는 일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고정적인 과제물 하나와 신제품 시식설문, 시장조사 등을 해야 하며, 특별히 열심히 한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이나 도서상품권)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다양한 혜택

주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월급은 14만원(세금 공제하지 않고, 둘째 모임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이었고, 열 분 중에 한 분을 선정, 연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모니터 회의를 마치고 과자꾸러미를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맛도 평가해주는 데,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도 늘고 참 좋았습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주부라면 꼭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롯데제과



태평양에서의 모니터 활동이 너무나 즐거웠고, 같이 활동한 분들과 성격도 잘 맞아서 모임일이 기다려질 정도여서 태평양 주부모니터로의 경험담을 나누어봅니다.

글 / 정은마미

활동기간은

태평양은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6개월씩 활동합니다. 예전에는 생활용품, 화장품으로 나눠 선발했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 합쳐서 선발합니다.

주부모니터로의 수입은

월 2회 모임에 15만원이며, 한 달에 한 번 쇼핑백 가득히 태평양에서 출시한 제품을 주는데, 화장품이 대부분이기에 아직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은

저는 생활용품, 화장품 두 분야에 모두 지원서를 작성했는데, 한 분야만 작성해도 됩니다. A4 2장 반 정도에 작성했는데, 각 제품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급했던 것이 채용담당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채용인원 2배수 정도를 선발해서 면접을 보는데, 모니터 초보자그룹과 경험자그룹으로 나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룹별 5명씩 면접에 들어가 모두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처음 질문을 받는 분은 당황스럽지만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고, 나중에 질문을 받을수록 마음의 준비는 되지만, 앞에서 자신의 대답을 해버리면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맞춰 길거나 짧지 않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은

각 그룹별로 요일이 정해져 있고 한 달에 두 번 회의에 참여하면 됩니다. 인원이 10명 정도라 분위기도 좋았고, 회의하기 전 인터넷으로 회의 일정이나 시간을 미리 공지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제품을 집에 가져와 사용해보고 평가하는 과제가 많고, 마트에서 가격 조사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12회 모임 중 딱 한 번 매장에 나가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제품(화장품)을 사용해 보는 것이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과 태평양 고객센터에 매년 초대장을 보내줘 계속 인연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갑자기 생각나 전화라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원하는 모든 분에게 행운을 바랍니다.

편집자주 : 기업의 특성상 모니터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험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編纂收錄 (엮을 편 모을 찬 거둘 수 기록할 록)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친일인사 3천여 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활란 전 이대총장 등이 포함된 명단은 친일 경력을 두고 논란이 있는 인사와 생존인사도 포함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자사전

編[편] 매다; 엮다; 책; 편; 책끈 / **[번]** 땅다.

형성 : 형성 絲(실사) + 扁(현판편) / 糸部 9획 (총15획) / 급 : 3급

編刊(편간) 책을 편저(編著)하여 냄.

編年(편년) 연대순으로 역사를 엮음.

編年史(편년사) 연대순으로 엮은 역사.

纂[찬] 모으다; 잇다; 붉은 끈

糸部 14획 (총20획) / 급 : 1급

纂輯(찬집) 글을 모아서 책을 엮음.

收[수] 거두다(斂); 갠다; 쇠하다; 가지다; 잡다; 쉬다; 가든히 하다; 정제하다; 쓰다; 등용하다.

형성 : 형성 (엮힐구) + (칠복) / 攴部 2획 (총6획) / 급 : 4급II

收監(수감) 잡아서 옥에 감금함.

收金(수금) 돈을 받아들임.

收納(수납) 거두어들여서 바침.

錄[록] 적다. 기록하다; 나타내다; 취하다; 말다(취급); 단속하다; 변변치 못하다. **[려]** 사실하다(조사)

형성 : 金(쇠금) + (나무깎을록) / 金部 8획 (총16획) / 급 : 4급II

錄寫(녹사) 문서를 옮겨 씀.

錄用(녹용) 채용(採用)함.

錄音(녹음) ① 레코드와 테이프에 소리를 기록하는 것. ② 영화에서 영사할 때 원음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회화와 함께 음악 기타의 소리를 필름에 기록하여 넣는 일.

아크로드, 운영자 사칭 사용자 피케이 소동

지난 8월 20일 초저녁 아크로드에서 운영자를 사칭한 사용자가 다수의 고렙 사용자들을 대량 피케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의 내용은 아크로드 서버 중 하나인 브롤리버 서버에서 'ARCHLORD0021'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50레벨 대의 고렙 사용자 다수를 필드에서 피케이하고 욕설을 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가 운영자만이 쓸 수 있는 대문자 아이디에다 운영자만이 알고 있는 운영자용 명령어를 사용했다는 점, 테스트서버에는 등장했으나 본서버에서는 운영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마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크로드에 대한 음해성 내용을 말했다는 점에서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용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운영자의 자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며 당시 게시판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이미 분노한 사용자들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에 대한 내용은 사건 당일 늦은 저녁 급속히 확산되어 퍼지기 시작했다. 아크로드를 운영하는 NHN게임즈측은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접수를 받은 후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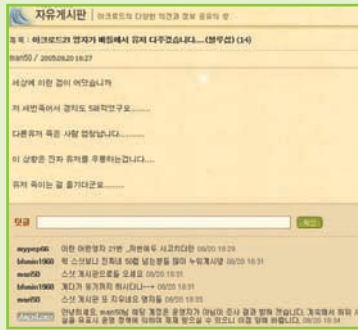
NHN게임즈의 한 담당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외에서 접촉했다는 점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의 소행인지 아니면 버그로 인한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버그를 이용한 어부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버그는 패치한 상태이다. 가해 사용자

에 대해서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반드시 찾아낼 것이며,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치 보상 이벤트 등을 통해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NHN게임즈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미심쩍은 구석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버그를 통한 어부징이라면 일부

사용자들에게 알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이 이를 사용한 점. 어부징을 통한 버그 캐릭터 생성이라곤 하나 운영자만이 알고 있는 운영자 전용 명령어들을 사용했다는 점 등이 이미 퇴사한 운영자가 이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사건이야 어찌되었던 이번 사건은 오픈베타 초기 당시 발생했던 돈 복사 버그로 인한 명예 실추에 이어 ‘아크로드’ 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인피니티, 3차 비공개 테스트 실시



윈디소프트(대표 이한창)는 ARN 게임즈(대표 박은석)가 개발한 무한액션 온라인게임 ‘인피니티’의 3차 비공개 테스트를 8월 24일(수)~30일(화)까지 7일간 진행했다.

이번 테스트는 인피니티 홈페이지(www.infinityonline.co.kr)를 통해 가입한 사용자 모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총 7일 동안 테스트를 통해 오픈 베타 서비스에 앞서 서버 안정성 부분과 버그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3차 비공개 테스트에서는 캐릭터 별로 의상과 무기 등 액세서리를 다양화했으며 자신의 호위병을 쥐, 돼지 등 동물 캐릭터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맵과 캐릭터별 기술, 아이템의 속성 등을 추가했으며 친구 초대 등 커뮤니티 기능들도 새롭게 선보였다.

한편 3차 비공개 테스트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GM과의 환관 승부!’, ‘최다 콤보를 찍어주세요’, ‘내가 바로 인피니티 버그 킬러’, ‘말풍선을 채워주세요’ 등 4가지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넥슨 클래식 RPG 인기 열풍, 타 온라인 게임들 울상

넥슨이 지난 8월 초 단행한 클래식 RPG의 무료화(부분 유료화) 선언으로 인해 유료 온라인 게임은 물론 무료 온라인 게임들의 동점자(동시접속자)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래식 RPG의 무료화 선언은 8월 1일 '바람의 나라'를 비롯하여 '일랜시아', '어둠의전설', '아스가르드', '테일즈위버' 등 넥슨에서 제공 중인 유료 온라인 게임의 무료화 정책. 당초 해당 게임들 매니아들을 제외하고 큰 전환점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일부 전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임들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게임의 초기적 그래픽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 신세대 온라인 게이머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바람의 나라' 경우 역대 최대 동점자수에 가까운 9만 명을 이미 돌파한지 오래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게임의 복고풍 바람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실제 클래식RPG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중인 모 사이트 경우 무료화 선언 이후 게시물 업로드 수가 이전보다 3~5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기때문인지 넥슨의 클래식 RPG의 각 홈페이지에는 몰려드는 사용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서버력에 대해 성토했던 이들의 글이 도배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클래식RPG 무료화 선언은 현재 유료 및 부분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 타 온라인 게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무료 온라인 게임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알려진 M모 게임의 경우 1.5:2 비율로 거래되는 아이템 현금 거래 시세가 클래식 RPG 무료화 선언 이후 1:2에서 0.8:2까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래식 RPG 무료화 선언으로 해당 게임 머니를 모두 판매 현금화시킨 후 클래식 RPG로 이동한 것.

게임 내에서 만난 한 사용자는 "넥슨 클래식 RPG 무료 선언으로 기존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도 게임머니를 팔고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들 움직임이 나라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모두 팔고 옮겼다"라고 밝혀 단순히 수치적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게임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클래식RPG의 무료 전환으로 넥슨의 캐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게임들을 즐길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라나도 에스파다', '썬', '제라' 등으로 일축될 것으로만 보였던 하반기 온라인 게임 시장에 넥슨 클래식RPG 무료화 선언이 몰고 올 추가 여파는 후발 업체들 분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WCG 2005, 스타크래프트 12강 진출자 확정



WCG 2005 스타크래프트 한국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프로게이머 시드 결정전 오프라인 예선전이 지난 8월 16일 신천의 한 PC방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를 통해 WCG 2005 프로게이머 시드 결정전에 참여할 12명의 전사들이 확정됐다. 박성준, 변은중, 최연성, 이재훈, 안기효, 임요환, 주영달, 나도현, 이병민, 한승엽, 박지호, 유인봉 선수가 최종 선발전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6조 예선에 참가했던 유일할 여성 프로게이머 서지수(테란)선수가 판록의 저그 사용자 홍진호 선수를 꺾는 파란도 일어났다. 또한 4조의 신예선수 주영달(저그)선수가 이윤열(테란)선수와 강민(프로토스)선수를 차례로 격파하고 12강에 진출하는 염원을 이뤘다.

넥슨, 워록 해상전 맵 선보여

(주)넥슨(대표 김정주)이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워록(Warrock)'에 본격적인 해상전 맵이 등장한다.

지난 7월 30일 추가된 공중전 맵 '앙그렌'에 이은 해상전 맵 '파르고나'의 등장으로 워록 사용자들은 이제 육.해.공의 전략적인 게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파르고나' 맵은 맵 중앙에 헬기타워를 중심으로 7개 진지를 3개의 섬에 분포시켜 해상전은 물론 공중전, 지상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상전인 만큼 해상 탐승장비인 Mk-V 전투 지원보트와 LSSC 침투보트를 탐승해 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던전 & 파이터

네오플이 개발, (주)삼성전자가 서비스하는 '던전 & 파이터'가 온라인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동시에 '게임을 접한 사용자들이 마치 오락실에 앉아 있는 착각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보이며 오픈베타 서비스에 돌입했다.

3년 간의 개발 기간과 총 60억원에 육박하는 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대작 게임에 못지 않은 스케일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던전 & 파이터'.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던전 & 파이터'에 대해 알아보자.

» 리얼 액션(Real Action)과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결합

'던전 & 파이터'는 실제 격투하는 듯한 리얼 액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을 공중으로 띄우고 자신이 개발한 공중 연속기술을 넣거나 혹은 기본 3연타 공격 후 필살기를 사용하는 등 액션이 실감있게 다가온다. 아케이드 게임처럼 방향키와 공격(X), 점프(C)키의 조작만으로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커맨드 입력 방식을 통한 스킬을 발휘하여 예전 오락실 게임을 하는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것도 '던전 & 파이터'가 내세우는 강점 중 하나다. 이는 이 게임이 아케이드에 있던 정통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기반 아래 온라인 게임이 지닌 장점을 접목시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성장 시스템

'던전 & 파이터' 세상 속에서 게이머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각지의 사건 속으로 던전 탐험을 떠난다. 액트마다 존재하는 던전 속에는 강력한 보스 몬스터가 존재해 게이머들의 도전을 기다리며 던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적이나 트랩의 배치, 보스 몬스터의 위치 등 내부 구조가 랜덤하게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던전을 클리어하면 게이머 개인별로 A부터 D까지 등급이 부여되며 클리어 랭크에 따라 경험치가 차등 부여된다. 그리고 던전을 클리어하면 보물상자를 얻게 되는데, 파티원들끼리 여러 개 보물상자를 서로 고른 후 자신이 선택한 보물상자 속에 든 아이템을 랜덤하게 분배받는다. 보물상자를 잘 고르면 레어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잘못 선택하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던전 탐험을 통해 게이머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며 상거래 및 퀘스트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해 좀 더 나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다. 육성중인 캐릭터가 일정 레벨이 되면 진적을 통해 더욱 강력한 캐릭터로 진화할 수 있다.

» PvP가 강조된 결투 시스템

'던전 & 파이터'는 온라인 게임의 특징을 잘 활용해 사용자들간 PvP가 강조된 결투 시스템을 구현했다. PvP는 마을의 주점에서 이루어지며 사용자들끼리 최대 4 : 4 집단 결투가 가능하다. 레벨에 따라 데미지를 자동 보정해주므로 레벨 차이가 나더라도 무리 없이 서로간에 싸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게이머의 실력에 따라 급과 단, 지존과 같은 다양한 등급이 적용되며 결투에서 이기면 결투 등급이 상승한다. 레벨은 하위 10급에서 1급, 상위 1단에서 10단까지 존재하는데 초단 이후부터는 승패의 여부에 따라 등급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존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상대를 잘 고르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픈베타 초반부터 이어지는 사용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등에 업고 '던전 & 파이터'가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드림위즈 뉴스레터



드림서포터즈 발대, 고객평가단 활동 시작

드림위즈(대표 이찬진)의 제1기 고객평가단인 드림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8월 30일 드림위즈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선발된 드림서포터즈 30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드림위즈의 서비스 평가는 물론 신규서비스 제안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드림서포터즈로 선발된 인원은 지속적인 활동 평가를 통해 점수가 우수한 대원에게는 취업의 기회는 물론 푸짐한 상품까지 주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번에 드림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돼 부산에서 참가한 대학생 장주희양(21세, 대학교 2학년)은 “드림위즈 제1기 서포터즈로 서비스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우수회원이 되어 취업의 기회도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 30여명을 모집하는 이번 행사는 단 2주간 짧은 모집기간인데도 평균 5: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발 대원들의 과제로 제출된 리포트도 예상 밖으로 깊이가 있어 참가자들의 열정을 가늠할 수 있었다. 특히 지니메시지와 10대 커뮤니티인 G까페(<http://g.dreamwiz.com>)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신청을 내 중 고등 학생들의 참여 열기도 매우 높았다.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는 드림서포터즈 환영사를 통해 “드림위즈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열심히 사용하는 회원들이니 만큼 따끔한 질타와 발전적인 조언,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쳐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드림서포터즈는 9월부터 4개월간, 다양한 미션 수행과 서바이벌 게임 형식의 개인대개인, 팀대팀 평가를 통해 최우수대원 1팀, 우수대원 2팀, 최우수대원, 우수대원 등을 선발 포상하게 되며 모든 대원들은 경력증명서, 명함 지급 등과 함께 모든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드림위즈 ‘매니아 트렌드’ 서비스 오픈



드림위즈(대표 이찬진)는 매니아들의 다양한 상품 사용기를 통해 소비자들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매니아 트렌드’ 서비스를 오픈했다.

‘매니아 트렌드’ (<http://mt.dreamwiz.com>)는 제품을 홍보 /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생활, 디지털, 게임 등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매니아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 동시에 평가단을 공동 모집 /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타겟을 확보하고 실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 넓은 홍보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이다.

또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분야별 매니아들의 다양한 사용기를 한 곳에서 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매니아를 매개로 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비스 오픈 이후 첫 번째로 (주)파인웍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파인드라이브 F400' 체험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평가단의 관심분야가 다양한 만큼 여러 시각에서 제품을 살핀 사용기들이 속속 등록되고 있어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있다.

동시에 (주)MPIO와 함께 '8방미인 (주)MPIO ONE' 체험단 활동이 진행 중이며 사진전과 우수사용기 선정 등의 이벤트가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드림위즈 매니아사업부문 이태훈 부문장은 “매너 광고나 키워드 광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수동적 광고와는 달리 예비 구매자와 매니아 계층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타겟마케팅을 진행해 반응이 좋다”며 “광고주 입장에서 보아야 할 ‘매니아 트렌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구매력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해 낮은 비용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점” 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드림위즈 ‘매니아 트렌드’에는 ‘반대vs찬성’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반:찬’ 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매니아 대상 컨텐츠 서비스 강화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똑똑한 길안내 도우미 'Fine-F400'

전 세계 상공에 떠있는 24개의 GPS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받아 현재의 위치, 목적지까지의 지리정보,

원하는 위치까지의 최단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아 길안내를 해주는 장치인 네비게이션. 이전 단순한 길안내 기능을 넘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다양한 지역정보, MP3와 AV-in 기능에 이르기까지 네비게이션의 발전은 진일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네비게이션의 기본 기능 외에도 다양한 부가기능까지 막강해진 파인드라이브사의 'Fine-F40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김정우 / 필자는 매니아 트렌드 파인드라이브 체험단 우수 리뷰어로 선정되었다.

📦 큼지막한 박스를 열면



블랙톤 회색라인이 돋보이는 본체와 본체를 거치하는 거치대, 전원 케이블,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쓰는 USB케이블, 부가적인 영상기기인 DMB나 Divx Player, DVD Player 등과 연결하는 AV 케이블이 보인다.

이외에도 파인드라이브 설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중요한 정보만 모아놓은 요약설명서가 보이며,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도의 여행코스과 정보를 제공하며 L-code라는 별도 주소를 제공하여 여행지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여행가이드가 보인다.

네비게이션에서 거치대는 네비게이션 못지 않게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운전하면서 화면을 보게 되는 네비게이션 특성상 유리면에 잘 흡착되어 안정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지탱해야 하는데, 넓은 유리흡착면과 두 개의 튼튼한 고정레버를 제공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 Fine-F400의 겉모습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 내부 디자인과 잘 어울릴만한 블랙톤 외형과 은색의 조화로운 컬러가 세련되게 보인다.

모든 단자는 기기 하단에 위치해 있다. 기본적인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DC12V단자, 지도업데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한 USB단자, 다른 기기의 연결에 사용되는 A/V, 사운드단자가 보이며, 파인드라이브의 장점인 핸드폰과 연결하여 텔레메틱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단자가 눈에 띈다.

뒷면 왼쪽에는 별도의 SD CARD를 삽입할 수 있도록 슬롯을 제공하는데, 이는 MP3파일이나 사진을 담아 네비게이션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뒷면 오른쪽에는 커다란 스피커가 2W 음향크기를 자랑한다.

📦 Fine-F400의 하드웨어 특징



이 제품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6,000건에 대한 정보와 전국 지번 정보를 2,300만 건 갖고 있으며, 자주 가는 지점을 99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지도를 평면/입체/하늘보기/고속모드/소통정보 등 5가지 방식으로 표시해주며, 경로 이탈시 자동 재탐색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동봉한 여행가이드에 실린 L-code를 이용하여 지번이나 시설물을 입력하지 않고도 6-10자리 숫자를 이용한 목적지 설정도 가능하다.

자체 내장메모리는 320MB, 4인치의 컬러 TFT LCD를 통해 터치스크린이나 리모콘을 이용해 경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LCD는 동급의 네비게이션보다 향상된 밝기를 제공하며 높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실제 필자는 이 제품의 하드웨어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분해해보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자칫 잘못 분해하면 AS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은 피한다.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모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하드웨어 설계가 마음에 들었다. 특히 LCD를 저가형의 대만이나 중국산이 아닌, LG필립스 정품패널을 쓴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며, 넓은 시야각과 밝기가 마음에 들었다.

Fine-F400의 소프트웨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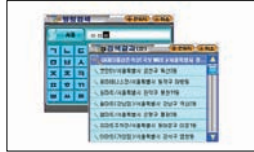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고 화려한 네비게이션 이더라도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이지,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거나 목적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만큼 네비게이션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진다.

Fine-F400은 큼직한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보이는 메뉴를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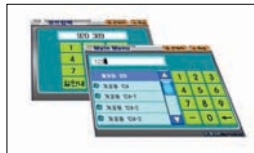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사양	
POI	50만건
지 번	지번 2,300만건 (전국 리 단위 지번)
감시 카메라	고정식 무인카메라 (6,000여 건)
확대/축소	9 단계
지도 표시	평면 / 입체 / 하늘보기 / 고속모드 / 소통정보
지점 등록	최대 99개
탐색 옵션	고속도로 제외/포함, 최단/최적의 빠른길
경로 재탐색	경로이탈 시 자동 재탐색, 사용자 선택 시 재탐색
명칭 검색	문자열 검색
분류 검색	시설물 분류 체계별 검색
주변 검색	현 위치 주변 시설물 검색
지번 검색	주소로 목적지 발견
명칭 검색	문자열 검색 (명칭검색 및 초성검색 통합방식)
L-CODE 검색	6자리 또는 10자리 숫자입력으로 목적지 설정
전화번호 검색	상호 전화번호 검색
감시카메라 등록	사용자 등록가능

▷ 명칭검색 / 주소검색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명칭검색도 마찬가지로 파인드라이브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명칭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초성만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마트를 찾고자 할 때 'ㅇㅁㅌ' 만의 입력만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목적지를 입력 후 경로탐색을 할 수도 있고 지점등록을 바로 할 수도 있다.

▷ 전화번호 검색 / L-CODE 검색



명칭검색과 주소검색 이외에 전화번호 검색과 L-CODE라는 파인드라이브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는 웹상이나 책자를 통해 일일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6자리의 숫자만으로 편하게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등록지점 / 안전운전



1부터 100까지의 등록지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기집 (차고지)를 지정함으로써 언제나 버튼 하나로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즘 네비게이션의 부가적인 용도로 자주 이용하는 속도카메라 정보도 담고 있으며, 안전운행 속도를 목소리와 함께 LED로도 표현해준다. 또한 업종검색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검색이 이루어지며, 또한 현 위치에서의 주변검색이 가능하며, 주변의 가장 가까운 병원, 주유소, 관공서, 숙박시설 등 필요한 위치정보를 보여준다.

▷ 화면구성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아이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이콘 모양만으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위쪽은 주행 중의 거리와 속도를 파악하고 방위와 GPS의 상태를 바로 보여주며, 아래 쪽은 메뉴와 현재의 위치에 관한 주소정보와 메뉴, L-CODE, 등록 지점, 차고지 아이콘을 보여준다.

실제 주행을 해보니



실제 운행시 가독성 높은 LCD와 음성정보를 통해 처음 간 길도 무난히 다녀올 수 있었으며, 대체로 안정적인 GPS성능으로 불편함 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또한 주요 시설물의 명칭의 아이콘을 통해 인근 주변의 시설물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특히 밝은 LCD화면이 운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안정적인 거치대가 본체를 단단히 고정함으로써 주행중 거치대에 대한 불편함은 느낄 수 없었다. 도로는 실제 폭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확장팩을 구매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이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야간 운행시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야간모드로 전환되는데, 밤에 운전할 때 눈에 부담되지 않도록 한 점이 아주 인상적이다.

부가기능은 뭐가 있을까

요즘 새로 나오는 네비게이션은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부가기능을 제공해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미리 L-CODE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거나, 운전하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시내 막히는 길은 미리 피해다닐 수 있는 텔레메틱스 기능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다.

▷ MP3 플레이어



Fine-F400은 자체적으로 MP3 기능을 제공한다. 자체 메모리나 외부 메모리에 MP3를 담을 수 있으며, MP3를 들으면서 네비게이션을 통해 길 찾기도 가능하다. 음악은 내부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지만, Fine-F400에 내장된 무선 카팩을 이용해 듣는 것이 훨씬 좋다.

▷ 포토 앨범 기능

간단한 기능이지만 jpg 파일을 볼 수 있는 포토앨범기능이 들어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을 굳이 인화해서 다니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 메모리에 여유가 있는 만큼 원하는 사진을 넣어둘 수 있으며, 초기 부팅화면도 자신이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 있다.

▷ Audio Video In

AV-IN기능이 있어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기와 연결이 가능하다. DVD 플레이어, Divx 플레이어, DMB 수신기, 외장TV튜너 등 별도 모니터가 필요 없이 F400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설치는 간단히 AV케이블을 연결하고, 메뉴에서 외부입력 단추만 클릭하면 끝이다. 또한 무선 트랜스미터를 이용하면 카오디오와 연동할 수도 있다. 화면은 LCD 밝기와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TV보다 좋았다.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였으며, 정품 LG필립스 LCD를 채용한 것이 밝은 화면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 것 같다. 또한 외부 비디오입력 단자와 무선 트랜스미터를 제공한 점이 인상적이었고, 직관적 메뉴가 마음에 들었다.

아쉬운 점은 실속도로에 대한 정보를 확장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짧은 시거잭과 부가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느낌을 받았다. 나름대로 Fine-F400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지면관계상 설명을 뺀 부분도 있으니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매니아 트렌드(<http://mt.dreamwiz.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오늘의 유머(<http://todayhumor.dreamw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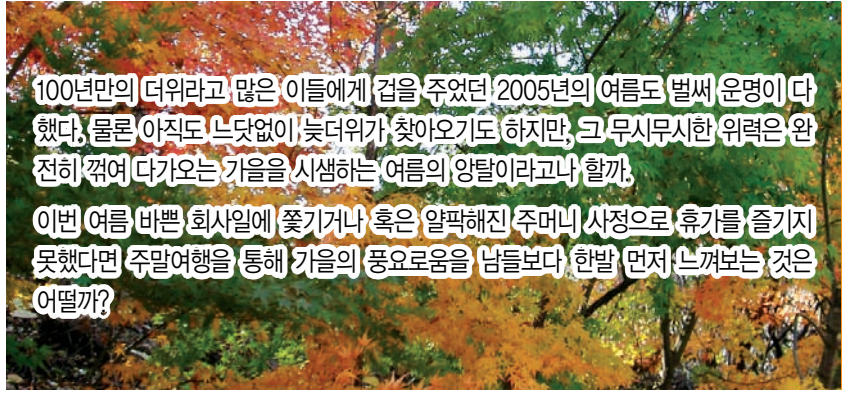
살면서 조금 별짱할 때

- 1) 설날에 서버버하고 할아버지가 돈 꺼내실 때까지의 시간 ... 이때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ㅠ
- 2)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는데, 비밀번호가 자꾸 틀릴 때 ... 뒷사람이 자꾸 눈치를 준다. ㅠ
- 3) 내가 교호 처음 갈 때 환영해주고 나 일으킨 다음에 단적으로 환영노래 부를 때
- 4) 친구랑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답이 없어 옆을 보면 친구는 뒤에서 신발을 묶고 있고, 내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방콕포청천님이 유머글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여정 행보

<http://tour.dreamwiz.com>



100년만의 더위라고 많은 이들에게 겁을 주었던 2005년의 여름도 벌써 운명이 다 했다, 물론 아직도 느닷없이 늦더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위력은 완전히 꺾여 다가오는 가을을 시샘하는 여름의 양탈이라고나 할까.

이번 여름 바쁜 회사일에 쫓기거나 혹은 알뜰해진 주머니 사정으로 휴가를 즐기지 못했다면 주말여행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남들보다 한발 먼저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친구? 연인? 가족? 누구든 같이 떠나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여름 내내 바빴던 당신 덕에 여행 가자는 이야기도 못하고 아쉬움만 가지게 했던 당신의 친구, 연인, 가족에게 미안함이 느껴진다면, 밤의 주산지 충남 공주로 주말여행을 떠나보자.

공주는 전국 밤 생산량의 12%, 충남 밤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로 현재 1,500여 농가에서 5천톤의 밤을 생산하고 있는 명산지로 꼽힌다. 그 중 공주 알밤축제가 열리는 정안면은 밤나무 숲길이 일품이다. 토실 토실한 알밤도 줍고, 동행들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대화를 통해 더위에 지쳤던 마음을 달래보자.

알밤 줍기의 재미가 줄어들 때쯤에는 시원한 계곡과 숲길을 따라 충남 제일의 명사찰인 미곡사에 가보자. 천년고찰 미곡사의 고즈넉함과 함께 2005년의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원해 보자.

공주 밤따기 체험 여행은 주말 당일 여행 상품으로 3~4만원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복잡한 일상에 지쳐버린 당신을 위한 휴양여행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졌을 때는 한번쯤 혼자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말이다.

아름드리 시원한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오대산 월정사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봉평으로 떠나보자.

오대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과 더불어 국내제일의 명산으로 꼽는 명산이며, 게다가 다양한 수종의 천연림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최고의 휴양림이라 할 수 있다. 월정사의 일주문 뒤로는 높이 50여 미터의 전나무 숲 터널이 800미터 가량 이어진다. 이곳에서 가슴속 가득히 싱그러운 맑은 공기를 만끽해 보자.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소설가 이효석의 생가가 있는 봉평으로 이동해 보자.

이 무렵 봉평에는 이효석의 표현대로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온통 하얗게 수놓인 메밀밭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운 좋게 '효석 문화제' 기간에 도착한다면, 메밀 음식 만들기, 민속 놀이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오대산 월정사와 함께 봉평을 둘러볼 수 있는 당일 여행 상품은 중식을 포함해 현재 3만원~3만5천원에 다녀올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USB CDMA 모뎀

글. 바람 / 필자는 투데이스피피시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인터넷과 밀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름 휴가나 가을 여행 등 며칠씩 회사를 비워야 할 때 혹시라도 서버나 시스템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큰 마음 먹고 휴가를 떠났는데, 회사일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고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중요한 업무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통 도심에서는 KT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인 네스팟(NESPOT) 서비스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심 내에서도 안 되는 곳이 많고, 지방에서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독도에서도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데,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고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CCU-550 EVDO 모뎀을 살펴보면



제품 포장박스를 보면 노트북 USB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CCU-550 EVDO 모뎀이다.

박스를 열면 보조 USB 연결 단자, 파우치, CCU-550

EVDO 모뎀, CCU-550 드라이버 CD와 매뉴얼이 있다.



가장 중요한 모뎀은 엄지손가락 1.5배 정도의 크기로, 흔히 볼 수 있는 볼펜과 비교하면 쉽게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보통 볼펜보다 조금 작고, USB 메모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휴대를 위한 클립이 달려 있어서 와이셔츠 등에 꽂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CCU-550의 설치와 사용방법

CCU-550 드라이버 CD를 노트북 CD롬 드라이브에 넣으면 네 개 파일이 보이는데, SETUP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시작된다. 설치 과정에서 단지 NEXT를 클릭하면 설치되도록 단순화시켰으며, 어느새 인스톨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설치가 모두 끝나면 EVDO MODEM 접속 관리자 모뎀이 바탕 화면에 생기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자.



EVDO CDMA 모뎀에는 2개의 작은 LED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이 동작중임을 알리는 LED이며, 또 하나는 데이터 연결이 되었는지를 알리는 파란색의 LED이다.

설치가 종료되면 작은 EVDO MODEM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의 우측하단에 인터넷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연결이 설정된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모뎀이 자동으



로 동작하며 SK텔레콤의 EVDO채널에 자동으로 로그인을 실행한다.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에 대해 아무런 설정 없이도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터넷 연결 속도와 지원하는 지역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속도는 일반 케이블모뎀을 통한 속도와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에서 그림이 많은 화면들도 금방 보이는 것이 느껴진다.

또한 SMS를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필요할 때 문자를 보내고 주소록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휴대폰에서의 SMS처럼 동일한 SMS 요금이 과금된다.(편집자 주 :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네이트온 등을 이용한다면, 핸드폰보다 편리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간단히 CD를 넣고 인스톨하는 것과 USB 형태로 된 모뎀을 노트북 USB 단자에 꽂는 것만으로 설치가 끝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공원, 식당 등의 장소에서 갑자기 인터넷을 써야 하는데, 네스팿은 안 되고 답답할 때 (SK텔레콤이 되는, 011 핸드폰 통화가 가능한 곳)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 실제 인터넷을 사용해보니



인터넷 사용시 체감속도는 일반 개인회선의 라이트급 속도 정도로 웹서핑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다운로드 속도도 평균 0.8~1.5MB 정도 수준으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 온라인 게임을 해보니

온라인게임에서는 무선의 특성상 ping값이 유선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평균 100ms 초반대를 유지했으며 필자가 하는 모 온라인 RPG 게임에서는 약간 반응이 느린 감이 들긴 했지만 게임을 진행할 때 큰 지장은 없었다.

단 1인칭 온라인 슈팅 게임 같은 경우 다소 지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해외 사용자와 게임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것 같다.

외부 사용시의 환경

최근 대부분의 지역에서 EVDO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외곽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고속 EVDO로 사용이 가능했으며, EVDO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은 CDMA로 자동 전환되어 CDMA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이 된다.

CDMA 방식이라 해도 아주 느리게 느껴지진 않으며 휴대폰으로 노트북에 연결해 인터넷을 써온 사용자나 PDA폰으로 전화 접속을 해서 웹서핑을 해본 사용자라면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CDMA접속은 평균 11KB/초 정도 속도를 보여준다.

용어설명 : EVDO(편집자주/Evolution Data Only의 약자. CDMA 1x EV-DO는 동기식 IMT2000 기술로서 CDMA 1x(CDMA 2000)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데이터 처리속도를 이론적으로 최대 2.4Mbps로 높은 기술로, EV(Evolution)은 1x에서 진화를 의미하고, DO(Data Only)는 음성과 데이터 신호 가운데 데이터 속도만 올렸다는 의미이다.

☞ 앞으로의 가능성

일반 휴대폰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EVDO방식의 데이터 요금이 매우 비싸다는 인식과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런 중에 '휴대폰으로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고 주장하며 나온 이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차량용 PC의 경우 PC사양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오프라인PC라는 점, 무선랜을 사용하더라도 적은 커버지역과 주행 중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나 휴가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지루함을 달래고자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TV를 켜지만, 이 제품을 이용하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나 온라인 고스트, 인터넷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 아쉬웠던 점

음성통화가 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 CDMA와 EVDO망을 사용하면 요금을 과금시키더라도 음성통화가 가능했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음성통화는 지원하지 않았다.

만약 CE용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음성통화를 지원했다면 넥시오 XP30 사용자와 USB-Host를 지원하는 PocketPC 사용자들에게 사막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넥시오 XP30 사용자들이 바라는 것이 CDMA 통신이기에 그것을 하루 빨리 구현시켜 주면 좋겠다.

노트북과데스크탑을 함께 쓴다면, 넷기어 유무선공유기



노트북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무선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네스팟등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서 쓰면 네스팟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네스팟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 적지 않다. 또한 노트북과는 별개로 집에서 다른 가족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면, 유무선 공유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별 다른 비용없이 (최소한 집에서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무선 공유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많은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버전 5까지 출시한 넷기어의 WGR614 유무선 공유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박스를 풀면



약 1~2년 전 넷기어의 제품을 만났을 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번 넷기어 614 버전5의 박스를 보면,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다만 예전에는 한글지원에 대해 의문했던 넷기어의 유통사가 박스에 한글로 제품설명을 해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발전이 이뤄진 것이다.

측면에는 시리얼번호와 바코드, 제품구성물에 대한 설명 등이 영문/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며 박스의 뒷면에는 이 제품의 사양과 간단한 구조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박스를 열면 이동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란관 재질의 포장재가 안전하게 제품을 감싸고 있으며, 제품의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새 제품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제품의 실제 내용물은 공유기, 어댑터, 받침대, 랜케이블, 제품 설명서와 인증서, 설치CD로 되어 있다. 공유기를 세로로 세울 수 있도록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은 공간 활용 면에서 좋은 반면, 어댑터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멀티탭에 연결할 경우 다른 포트에 방해가 될 정도로 보였다.

■ 공유기의 외형을 살펴보면



기 존 회색 UFO모양의 넷기어 공유기와는 달리 이 제품은 화이트색상으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었다. 테두리 부분에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볼륨감을 살리고 홈이 파여 있어서 받침대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 다른 회사의 공유기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멋진 디자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유무선공유기와 마찬가지로 후면에 4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5db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안테나 바로 옆에는 리셋(RESET)버튼이 위치하고 있다.

바닥면은 4개의 고무발과 제품설명과 시리얼이 적혀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깔끔한 외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무발 안쪽에 별첨 나사를 이용해서 세심한 외형설계를 엿볼 수 있었다.

제품의 상단부분은 깔끔하게 NETGEAR 문구가 찍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함과 세련미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면부의 그린색 LED는 은은하면서도 창에 투과되는 문구가 표시되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넷기어 공유기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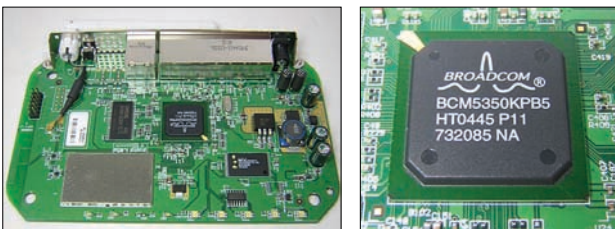
구 성물로 제공되는 받침대는 테두리 부분 홈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체감을 준다. 또한 안테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활용뿐만 아니라 수신율을 조금이라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발휘한다.



어댑터와 LAN 케이블 연결을 살펴보도록 하자. 붉은 랜케이블은 캡이 씌어져 있어서 뽑을 때 상당히 힘들다. 그 이유는 랜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도록 일부러 캡을 씌워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또한 어댑터의 크기는 넷기어 WGR614의 디자인에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유기 외형과 어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댑터는 공유기와 전혀 다른 위치(예를 들어 책상 밑이나 뒷면)에 놓지만, 슬림형 어댑터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넷기어 WGR614 버전5 내부를 보면



사 실 버전에 따른 변화가 무엇일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외형 외에 성능과 칩셋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여 다른 리뷰 사이트들의 글을 검토해보았다.

사진을 보면 WGR 614의 메인 칩셋으로 브로드콤(BROADCOM) BCM5350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브로드콤을 메인 칩셋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성능 모두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 PC에 연결하여 사용해보니



공 유기를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편이다. 실제 케이블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이 잘 되다가 가끔씩 회선불량 등의 이유로 인터넷이 안 될 때 곤란했던 사용자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공유기는 사용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거의 자동적으로 인터넷을 연결시켜준다. 필자의 시스템은 XP 서비스팩 2환경인데, 넷기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CD를 넣지 않은 상황에서도, 라우터연결 메시지가 뜨고 자동으로 고정/유동 아이피인지 체크한 후 나라를 설정한 후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 넷기어 WGR614 유무선 공유속도 체크



두 대의 PC 유선 연결시의 업/다운 로드 속도를 측정했더니 최고 속도 4Mbps가 나왔다. 각 포트별로 이상 유무 체크 및 속도면에서 한계치에 가까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VDSL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라 54Mbps이상을 테스트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VDSL에서는 속도 손실이 거의 없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FTP서버를 이용한 양 PC의 데이터 공유속도에 있어서도 기존의 테스트하던 공유기에 비해서 우수한 속도를 보여주었다. 참고로 노트북 유선LAN카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전송시의 최대속도에는 못 미쳤다.

무선 인터넷의 속도차이를 보기 위해 센트리노 노트북을 이용해서 체크해보았다. 4평 크기의 방에서 이루어졌기에 손실률을 보이지 않았으며, FTP서버를 무선으로 구축한 경우 560kb/s정도의 다소 아쉬운 속도를 보여주었다.

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과연 공유기와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계단 등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테스트해보았다. 당연히 집안에 하던 테스트에 비해 업/다운로드의 속도는 떨어졌지만, 어차피 노트북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공간이 집 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니 수궁할 수밖에 없었다. 집 안에서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카드리라이더 등 게임도 무선 환경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즐길 수 있었다.

■ 넷기어 WGR614의 수신거리



수 신거리를 체크하기 위해 25평 집안에서의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테스트해 보았는데, 집안에서의 테스트는 대체적으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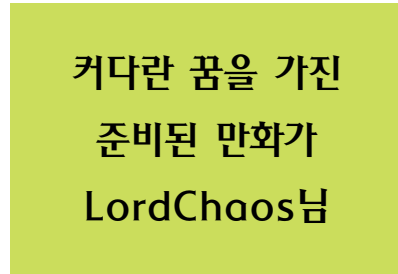
■ 마치면서

요 즘 출시되는 공유기들을 보면 놀라울 만큼 저렴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이 제품은 큰 변화 없이 뚝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메인집셋을 변화시켜 수신거리나 수신율을 향상시켰던 점이 좋았다.

지면 관계상 필자가 자세히 테스트했던 모든 내용을 게재하지 못했지만, 더욱 자세한 분석결과를 보고 싶은 분은 매니안닷컴 (manian.dreamwiz.com)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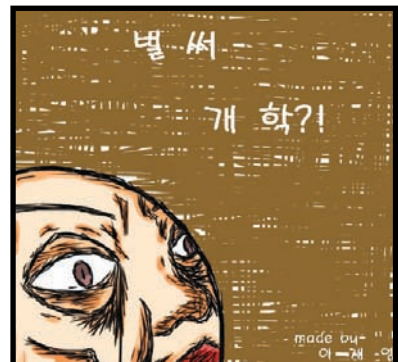


자료제공 : <http://blog.dreamwiz.com/takken45>



자신이 그린 만화로 블로그를 채우면서 만화가에 대한 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고등학생 블로거를 만나보았다.

유명 만화가에 비하면 그림이 세련되기 보다는 거칠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 유명 만화가라도 처음에는 다 무명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코나미, 영등위와의 소송에서 승소

코나미 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5월 영상물 등급 위원회를 상대로 자사 '위닝 일레븐7'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결과, 대법원이 2005년 8월 19일 최종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닝 일레븐7'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코나미사의 비디오 게임인 '위닝일레븐7'을 김 모씨가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기로 전환, 판매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하였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림으로써 제기되었다.

본래 가정용 비디오게임물을 오락실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또는 대여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회가 저작권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코나미사 이의를 무시하고 위 김 모씨 신청

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을 해준 바 있다. 이에 코나미 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이 행정기관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 모씨 행위가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국내 게임센터 사업자에 의해 코나미사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등급분류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권을 행사하여 위 김 모씨로부터 '위닝일레븐 7'을 오락실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저작권자 동의를 받은 것인지 확인만 했더라면 국가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코나미사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진정한 권리자 또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등급분류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코나미는 본 판결에 대해 "타사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이 유통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테일즈 오브 레젠디아' 한글판 화면사진 공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대표 윤여울)는 PS2 최고 인기 RPG 게임 중 하나인 테일즈 시리즈 최신작 '테일즈 오브 레젠디아'를 완전 자막 한글화하여 2005년 10월 중으로 발매할 계획이다.

테일즈 시리즈는 남코가 개발한 인기 RPG 시리즈로서, 한국에는 2003년 4월 '테일즈 오브 에스티니아'가 발매되어 약 4만장 이상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RPG는 국내 비디오 게임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장르중 하나지만, 게임 장르의 특성상 풍부한 게임 내용과 방대한 데이터를 한글화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국내 발매가 적은 게임 장르에 속하고 있다.

특히, '테일즈 오브 레젠디아'는 일본과 동시발매(일본 발매일 8월 25일)를 추진하였으나 책 15권 분량의 방대한 시나리오 작업으로 개발기간을 늦춰야 했을 만큼 게임 스토리가 심오하고 게임 볼륨이 풍부하다.

따라서 '테일즈 오브 레젠디아'의 우리말 정식 발매는 테일즈 시리즈를 좋아하는 게임 사용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나미, 한국제작사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일본의 대형 게임기업인 코나미(대표 코즈키 카게마사)가 (주)네오플(대표 허민)과 (주)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를 상대로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는 "(주)네오플과 (주)한빛소프트에게 코나미 주식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변경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해준 조정기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요청을 계속한 바 있다. 그러나 (주)네오플과 (주)한빛소프트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는 코나미가 지난 1993년 '닌텐도 슈퍼패미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PS2용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12'까지 발매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이다.

코나미는 PS2용 축구 게임 '월드 사커 위닝 일레븐' 시리즈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으며, '테탈 기어 솔리드' '유희왕' '비트매니아' '댄스댄스 레볼루션' 등 유명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코나미의 2004년도 매출액은 약 2600억엔(2조 4300억원)으로 일본 게임업계 2위이다.

Xbox360 기본세트 가격 30만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2005년 연말에 발매를 예정하고 있는 차세대 가정용 게임기 'Xbox360'의 북미지역 및 유럽 버전 가격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Xbox360 코어 시스템'과 게임 플레이를 주목적으로 한 코어 사용자용 'Xbox360'의 두 가지 버전 하드웨어를 출시한다. 'Xbox360 코어 시스템'은 299.99달러(약 31만원), 'Xbox360'이 399.99달러(약 41만원)이다.

ruliweb

'Xbox360 코어 시스템'은 본체 외에 3m 유선 컨트롤러, 본체 전면에 설치되는 교체 가능한 '페이스플레이트', 무료로 Xbox Live를 즐길 수 있는 실버 멤버십, S비디오 및 콤포지트 비디오 단자, 광 오디오 단자를 지원 하는 S비디오 AV케이블 팩으로 구성된다.

코어 사용자용 모델인 'Xbox360'은 무선 컨트롤러, 페이스 플레이트, Xbox Live 실버 멤버십 외에 하드디스크와 헤드셋, 하이비전 대응 'VGA HD VA 케이블', 그리고 윈도우즈 XP 미디어 센터 에디션 2005에 대응하는 '미디어 리모콘'이 동봉된다.

SCEK, 메가박스, 'PSP 무료 체험 서비스' 실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대표 윤여울)와 메가박스 씨네플렉스(주)는 영화 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PSP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PSP 무료 체험 서비스'를 2005년 8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다.

PSP 무료 체험 서비스는 극장을 직접 방문하여,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줄 서서 대기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서, 이용 고객은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인기PSP 게임, 영화 그리고 영화 예고편 등을 PSP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메가박스 코엑스점은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현장에서 대기하는 주말 이용고객들에게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PSP를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재미(Fun)와 즐거움(Entertainment)을 제공하고, SCEK는 영화 관람을 위해 방문한 남, 여 젊은 고객들에게 PSP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PSP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증가시킨다는 전략이다.

로지텍 코리아, PSP전용 휴대용 케이스, 스피커 출시

로지텍코리아(대표 서수경)가 자사의 PSP 전문 액세서리 제품군인 플레이기어 패밀리에 PSP용 휴대용 케이스 '플레이기어 스트리트'와 PSP용 휴대용 스피커 '플레이기어 앰프'를 추가로 출시했다. 로지텍은 지난 7월 PSP 전문 액세서리 제품군으로 플레이기어 포켓, 스텔스(이어폰), 웨어, 모드(헤드폰)를 출시했으며, 이번에 스트리트와 앰프가 추가함으로써 PSP의 스타일과 성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품 라인을 갖추게 되었다.



로지텍 플레이기어 스트리트는 깨지지 않는 견고한 폴리카보네이트 외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양손은 자유롭게 해주면서 PSP, 게임디스크, 메모리스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휴대용 PSP 케이스이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이 함께 제공되어 솔더백처럼 어깨에 매고 다니

거나 메신저백처럼 가슴에 대각선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배낭에 붙여가지고 다닐 수 있어 각기 다른 세 가지 스타일로 자기 취향에 맞춰 착용할 수 있다.

또한, 헤드폰 잭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으며, 내장된 선(코드) 관리 기능이 있어 선을 밖으로 꺼낼 필요 없이 이동하면서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지텍 플레이기어 앰프'는 세련된 스타일 PSP 전용 휴대용 스피커로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PSP 음악, 영화, 게임 사운드에 풍부하고 깊은 스테레오 사운드 성능을 제공해준다.

이 스피커에는 PSP 거치대가 있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간편하게 PSP를 올려 놓고 핸드프리로 PSP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연장 오디오 케이블이 제공되기 때문에 게임 중에도 우수한 사운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제품은 이동시 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드림위즈 추천 맛집

<http://dreamwiz.diningok.com/>

아직도 모르고 오리지세요?



드림위즈에서 **인터넷 예약만** 하세요!
할인은 물론 여러가지 혜택이
쏟아집니다.

자료제공 : 다이닝OK



음 식 점 : 장군수산
업 종 : 바닷가재 전문점(바닷가재)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14-5
쿠폰내용 : 가재요리 10% 할인(주말 제외)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청복전
업 종 : 일반일식(복요리, 사브사브)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17
특 전 : 현금결제 시 20% 할인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까사로케(압구정점)
업 종 : 멕시칸(화히타, 할리스코)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93-2
특 전 : 치킨퀘사디아 무료제공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이현
업 종 : 일반한식(생불고기, 해물잡탕밥)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 10층
특 전 : 10% 할인
유효기간 : 인터넷예약을 한 모든 고객



음 식 점 : 까사로케(여의도점)
업 종 : 멕시칸(화히타, 할리스코)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번지 대한빌딩 1층
특 전 : 치킨퀘사디아 무료제공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우리돈맛
업 종 : 고깃집(복매운탕, 마늘삼겹살)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0-17
특 전 : 10% 할인
유효기간 : 인터넷예약을 한 모든 고객



음 식 점 : pho75
업 종 : 베트남(쌀국수, 냉커피)
주 소 :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지하 1층 2-F호
특 전 : 주말 인터넷 고객을 위한 10% 할인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연탈갈비
업 종 : 고깃집(갈비, 냉면)
주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8
특 전 : 10% 할인
유효기간 : 인터넷예약을 한 모든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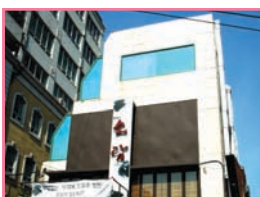
음 식 점 : 9292 피자썸
업 종 : 고깃집(항정살, 오겹살 김치구이)
주 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1-26
특 전 : 주말이용고객20% 할인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하늘마루(강남본점)
업 종 : 고깃집(등심, 생갈비)
주 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1-5
특 전 : 10% 할인
유효기간 : 인터넷예약을 한 모든 고객



음 식 점 : 심향제주사랑
업 종 : 일반한식(제주사랑스페셜, 갈치조림)
주 소 : 고양시 일산동 1175-1 정석코아 B/D 1층
특 전 : 현금결제 시 10% 할인
유효기간 : 2005. 09. 15 ~ 2005. 10. 15



음 식 점 : 소담
업 종 : 한정식(한정식,간장게장)
주 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19
특 전 : 10%할인
유효기간 : 인터넷예약을 한 모든 고객

Fine - F400

내비게이션 컨버전스의 표준

 26만 컬러 액정 화면	 450칸델라 밝은 화면	 안정된 위성 신호 수신
 -30도 에서 정상 작동	 2W 스피커 강력 사운드	 정체 도로 우회 기능
 외부 영상 입력 가능	 MP3 사운드 재생 기능	 3D 입체 지도 채용
 전자 앨범 기능 채용	 전문 업체의 전자 지도	 무선 카팩 자체 내장

Finedrive.
Fine - F400



wizcat

www.wizcat.co.kr

Catch Your Cool~

마법고양이 위즈캣이
새로운 세상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 곳곳에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가장 큰 힘을 가진 마법이
'사랑' 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위즈캣과 함께
Cool 한 행운을 찾아 떠나볼까요~

